

2016 기독교교육진흥주일 자료집
|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지킵시다! 9월 18일 |

‘교사’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CONTENTS

목회서신	역사를 통해 정체성을 알고 사명을 찾자. 감독회장 전용재	3
설교	내가 늘 너를 지켜볼께 둔산성광교회 목사 이웅천	5
예배자료	교사들을 위한 예배 감리교신학대학 강사, 예수마음교회 목사 이은경	8
프로그램	영적 지도자로서의 교사되기 은광교회 전도사 유명화	14

역사를 통해 정체성을 알고 사명을 찾자

감독회장 전용재

기독교 교 교육 진흥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섬기시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매년 9월 3째 주일은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기독교교육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 진흥책을 모색하기 위해 제정된 주일입니다.

감리교회는 고종황제로부터 ‘교육’과 ‘의료’사업의 윤허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배재학당을 시작합니다. 그 후 이화학당, 평양 광성학교, 정의여학교, 영명학교, 인천 송도학원등을 건립하고, 교회학교(주일학교)를 시작하여 민족교육과 신앙교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족과 대중의 희망이 되었고, 그 결과 훌륭한 민족적 지도자를 배양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리교회 뿐 만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통계표를 보면 2006년 이후 원입인(아동)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과 교재, 물질적 지원, 교사의 수준들이 초기 선교 때보다 더 좋음에도 왜 그들은 교회를 떠나가는 것일까요?

어린이들과 젊은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감리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감리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감리회 감독회장으로 재임하면서 『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감리교인』이라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회 역사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132년 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교사들을 어둠과 억압과 가난과 질병과 절망 밖에 없는 조선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 희생과 그들의 가르침에 감화 받고 지도받은 지도자들이 조선이 개화하는데 이바지하였고,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OECD 국가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감리교인』이란 책은 감리교인 20인을 선정하여 그들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발전하는데 어떤 수고와 희생을 하였는지를 잘 수록하였습니다.

교회학교와 교인수가 감소하고, 감리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은 바로 정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뿌리를 찾고, 역사를 아는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도 생기고, 비전도 있고 사명도 확실한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진흥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바로 역사를 찾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리교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의식에서 교사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생기며, 이런 정체성은 비전과 사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의 이러한 변하는 감리교회가 다시 소생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젊은 세대에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되, 감리회에 속한 그들에게 감리회의 뿌리를 온전히 알게 하여, 정체성을 갖게 하고, 비전과 사명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감리교회의 미래요, 한국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6천 5백 개 모든 감리교회와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늘 너를 지켜볼게

신명기 11장 8-12절

둔산성광교회 목사 **이웅천**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일곱 살 무렵부터 책을 읽는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이었고 집안도 어려워 책 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어느 주일 섬기던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해생활〉이라는 어린이 잡지를 한 권 선물했습니다. 아이는 너무 기뻐 했고, 한주간 내내 잡지에 실린 동시와 동화 그리고 기사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잡지를 읽으면서 어린이의 마음 속에 새로운 생각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도 잡지에 실린 글처럼, 글을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린이는 공책에 자신의 마음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둥그런 해님이 / 안개 낀 산등을

벌벌 기어 옵니다 / 땀 흘리며 옵니다

다음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어린이는 공책을 교회학교 선생님께 보여 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린이가 쓴 동시를 읽어보고는 물어 보셨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고 너 혼자 쓴거니?”

어린이는 동시를 쓰게 된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에게는 누나가 있었는데 읍내에 있는 고무신 공장을 다녔습니다. 매일 새벽 어린 동생은 누나를 배웅하러 마을 입구에 나가서 멀어지는 누나의 뒷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언덕 너머에서 해가 떠오를 때까지 서있곤 했습니다. 그

기억을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너 글을 쓰는 재능이 있구나. 아주 좋은 동시인걸” 어린아이의 가슴이 기쁨으로 벅차 올랐습니다. 덧붙여서 선생님은 선물도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아해 생활>을 1년동안 사줄테니까 잘 읽고 좋은 글을 많이 써보거라”

그리고 한 마디 덧붙이셨습니다.

“선생님이 늘 너를 지켜볼꺼야”

이 어린이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1941년, 이 어린이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선물로 주셨던 <아해 생활>에 “피라미드” “겨울밤” 이 추천을 받아서 시인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즈음 이 분이 쓴 시를 국립합창단의 노래로 듣습니다.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 뉘 부르는 소리 있어 나를 멈춘다
옛 생각이 외로워 휘파람 불면 / 고운노래 귓가에 들려온다
돌아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고 / 저녁놀 빈 하늘만 눈에 차누나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보리밭>의 박화목 시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내가 늘 너를 지켜볼께”라는 교회학교 선생님의 말씀이 한 어린아이를 시인으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신명기 11:12)

신명기 11장 8-3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 어떠한 공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단(8-12절)은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리라는 내용을 전합니다. 12절은 이 문단의 마지막 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살핌이 머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땅이므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장소입니까? 이 땅은 이집트 땅과는 다른 곳입니다. 이집트의 땅은 씨를 뿌린 후에 물을 주어야 하지만, 약속의 땅은 하늘에서 내린 물로 채우시는 곳입니다.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명기는 약속의 땅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여호와와 눈이 항상 머물러 계신다”고 표현합니다.

이 땅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하여 동일한 심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있는 곳은 언제나 어디서나, 부모의 눈길과 마음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늘 머물러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यो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귀한 선물을 받고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선생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한 어린아이가 시인이 된 것처럼,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눈길 가운데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 갑니다. 한 사람이 ‘여호와와 눈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의식 가운데 살아가면, 골로새서 1장 28-29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공동체 안에서 점점 더 ‘온전한 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기독교교육진흥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세대를 섬기는 교사 여러분이 이 귀한 고백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에게 이 고백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을 위한 예배

감리교신학대학 강사, 예수마음교회 목사 **이은경**

• 준비물

흰 천(사각 또는 원형), 밧줄 1개(최소 10m), 색 끈(인원 수 만큼, 25~30cm), 바구니, 황금색 천, 큰 양초, 십자가, 라이터, 글자판(케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좌중

• 사전 준비

- ① 한 주 전에 교사들에게 교사로서의 자신을 상징하는 물건을 하나씩 가져오도록 알려준다.
- ② 예배대형은 강대상을 중심으로 반원형 또는 원형으로 의자를 배치한다.
- ③ 예배 전에 원의 안쪽 바닥에 흰 천을 미리 깔아놓는다.

〈 예배 순서 〉

• 예배로의 초대 / 인도자

2016년도 교사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 인도자는 원형으로 앉아있는 교사들에게로 와서, 준비한 긴 밧줄을 한 교사에게 넘겨준다.
- 그리고 계속해서 옆으로 넘긴다. 이때 각 사람의 손에서 손으로 밧줄이 옮겨지도록 한다.

- 맨 처음 교사에게 밧줄이 돌아와 모든 교사가 하나의 원으로 이어질 때까지 밧줄을 옮긴다.
- 모든 교사들이 밧줄을 잡았으면, 함께 일어나 원을 만든다.

• 마음 열기 / 인도자

(밧줄을 잡고 선 채로)

이 원을 잡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후 제자들의 모임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잡고 있고 밧줄을 더 작게 만든 후, 바닥에 내려놓고, 자리에 돌아가 앉는다.)

• 교회 만들기 / 다함께

인도자 :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4사람이 나와서 바닥에 있는 밧줄로 교회 모양을 만든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의 외형이 완성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임재를 기원합시다.

• 찬양 / 찬송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_ 다함께

• 교회 세우기 / 인도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된 삶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가장 가깝게는 성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바닥천의 한 가운데에 금색 천을 깔고, 그 위에 십자가를 세운다.)

• 성경 읽기 / 마태복음 28:18-20 / 말은이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을 읽은 후, 금색 천 위에 성경책을 펼쳐 놓는다.)

• 촛불 점화 / 말은이

(성경 봉독이 끝난 후, 불을 붙인 양초를 성경책 옆에 놓는다.)

• 교회의 사명 묵상 / 인도자

이제 주님의 교회가 십자가 보혈의 사랑 위에,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교회의 사명은 다음의 4가지입니다.

① 케리그마 (말씀 선포) ② 디다케 (교육) ③ 코이노니아 (성도간의 교제, 친교) ④ 디아코니아 (봉사)

(한 사람이 나와서 사명 4가지가 적힌 종이를 황금 천 주위에 각각 펼쳐놓는다.)

• 묵상 /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속도” (니코스 카잔차키스) / 말은이

인도자 :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본래적인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몸 된 교회를 세우시면서 왜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을까요? 내가 교사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각 사람이 받은 은사도 다르고, 각자의 재능도 다릅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기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어떤 교사였나요? 아이들을 재촉하거나 다그치는 교사는 아니었나요? 혹은 나의 게으름 때문에 아이들에게 무관심하지는 않았나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속도”라는 글을 함께 읽으며, 나는 어떤 교사였는지 묵상해 봅시다.

(교사 중 한 사람이 아래의 글을 천천히 읽는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한 나무 등걸에서 나비가 나오기 위해 막 구멍을 뚫어놓은 듯한 번데기를 발견했다. 나는 한참 기다렸으나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아 조바심이 났다. 나는 허리를 굽히고 그 위에 입김을 불어 번데기를 좀 더 따뜻하게 했다. 내가 열심히 입김을 불어넣은 덕택에 기적이 내 눈 앞에서 빠르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날개가 뒤로 접히고 구겨져 있는 걸 본 그 순간의 공포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 가여운 나비는 퍼려고 필사적으로 버둥거렸다. 나는 또다시 몸을 숙여 열심히 입김을 불었다. 그러나 허사였다.

그놈은 번데기에서 천천히 나와야 할 필요가 있었고, 날개의 펼침은 햇빛 속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늦었다. 내 입김 탓에 나비는 때가 되기 전에 날개가 완전히 구겨진 채 억지로 집에서 나오게 된 것이었다. 그놈은 절망으로 파닥거렸고, 몇 초 후 내 손바닥에서 죽었다.

나는 그 나비의 시체만큼 내 양심에 무거운 짐은 없다고 믿는다. 자연의 위대한 법칙을 거스르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두르지 말아야 하고, 조바심 내지 말아야 하고, 영원한 리듬에 공손히 순응해야 한다.

(좌종을 치고, 3분 정도 침묵 속에 머물기)

• 마음 잇기 / 다함께

인도자 : 나의 부족함이나 게으름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조금한 마음에 성급하게 성큼성큼 나 혼자 앞서갔던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걸음을 되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도록 우리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셨고,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소중한 동역자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보겠습니다.

- 인도자가 색 끈이 담긴 바구니(혹은 쟁반)를 들고 교사들에게 가져나, 바구니를 옆으로 돌린다.
- 교사들이 직접 원하는 색 끈을 고른다.
- 각자가 선택한 끈의 양끝을 잡고, 양쪽 사람이 잡은 끈과 맞게 하여 하나의 원으로 만든다.

• 교사의 다짐 / 다함께

(색끈을 맞잡은 채로)

인도자 : 다양한 색 끈들을 이어 하나의 원을 만들 듯,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우리들을 교사라는 이름으로 부르시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교사로서의 나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 4가지 중에서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것인지 생각해 보고, 그 단어 주위에 나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 자신이 선택한 단어 주위에 가서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끈으로 손바닥 그림을 그린다.
- 미리 준비해 온 ‘교사로서의 나를 상징하는 물건’을 그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자리로 돌아간다.

• “한 교사의 기도” (야누쉬 코르차)_ 말은이

하나님, 저는 길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장탄식을 하지도 않겠습니다.

허리를 굽히지도 않겠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할 만큼 예물을 가져오지도 않았습니

당신의 위대하신 은혜를 흠칠 생각도 없고, 내리시는 굉장한 선물도 갈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는 생각에는 하늘에 날아오르는 노래를 실어다 줄 날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색채도 없고 향기도 없고 꽃잎도 없습니다. 피곤하고, 졸릴 뿐입니다.

저의 눈은 침침해졌고, 등은 일을 하도 많이 하여 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제게는 찬송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찬송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고 조소할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당신의 존전에서 겸허하게 있으면서 당신께 드리는 불타는 소청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나지막이 속삭이면서도 불굴의 의지를 담아 말씀드립니다.

내 눈길에 명령을 내려 구름 위로 겨누어 쏘아 보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똑바로 서서 간청합니다.

아이들에게 선한 의지를 주시고, 그들의 힘을 북돋워 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편한 길로 인도하지는 마옵소서. 그렇지만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옵소서.

제가 드리는 간청에 대해 단 한번 드리는 불입금으로 저의 하나뿐인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은 슬픔입니다.

저의 슬픔과 노동을 드립니다.

• 결단의 찬양 /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_ 다함께

• 축도

영적 지도자로서의 교사되기

은광교회 전도사 유명화

기독교 교육이 힘차게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비상을 꿈꾸는 신앙의 계절이다. 교육에 대한 가장 큰 기대는 무엇인가 이전보다 나은 변화이다. 알게 모르게 교육을 통해 좀 더 새롭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달라지기를 바라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현재 기독교교육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책’을 21세기 현대인들과 연결시켜야 하는 ‘시대성’과 종교성을 조화시키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룩하지만 까다로운 기독교교육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해결의 실마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theodidacti, one taught by God)’으로서의 교사, 곧 영적 지도자에게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에 의해 가르침을 받은 기독교교육의 교사는 하나님과 가장 본질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새롭고도 회복된 친밀함을 가지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지적인 훈련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영적인 훈련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제자들은 모두 한 형제·자매이며,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마23:8-10)이다. 예수의 뒤를 따르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엄밀히 말하면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따로 없고 모두가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배우는 것이다. 기독교교육이 꿈꾸며 추구하는 바, 역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로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

는 신앙의 신비와 진리를 함께 탐구하며, 삶의 고난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함께 걸어가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의 씨실과 날실은 고난을 함께 겪어내는(suffering) 베틀 속에서 배움의 가슴을 넓혀 준다. 이 과정은 단순한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닌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 사랑의 신비라는 구원을 경험하게 한다.

기독교교육은 표면적으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의 구별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함께 배움의 합창, 하모니를 이룸으로서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세워진다. 교사가 먼저 하나님께 배움을 받았다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배움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거나 강요하면 오히려 그 생명력을 잃게 한다.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교사는 학생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하는 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길을 터주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교사의 사명이다.

진리를 향해 가는 배움 공동체의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들이 매주일 명쾌한 대답과 결론을 얻지 못한다고 해도 ‘위대한 말씀’이 성령을 통해 영적 배움을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에 서 있어야 한다. 그 토대 위에서 배움의 여정은 안전과 자유를 누리며 사랑의 연대를 경험할 수 있다. 기독교교육은 친밀하면서도 거리감을 갖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모를 때도 있는 오묘하고 복잡한 여정을 통해 더 크고 위대한 진리(위대한 말씀)를 만날 수 있다. 때때로 경험하게 되는 애매모호함이나 부조화가 영적 배움의 길을 가는 기독교교육가들에게 두려움과 혼란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이뤄지는 배움은 신비의 과정으로,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증명하며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이해의 범주 안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둬 둘 수 없다. 영적인 여정을 삶으로 풀어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움은 다양성과 개방성을 지니는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를 향해 열어야 한다. 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우리 안에서 꽃피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자로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세상의 고통 속에서 일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교육에서 교사는 영적 지도자로서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면, 무슨 근거로 가능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 먼저 배움을 받은 자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가르침의 소명’이다. 머리와 가슴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본성이 아닌 내면에 심겨진 하나

님의 본성에 의해 참 자기로 변화된다. 파커 파머는 이것을 ‘내면의 교사(teacher within)’라고 불렀다. 내면의 교사는 초자아도 아니고 양심도 아닌 ‘진정한 자아’로서 자기 정체성과 온전성을 갖게 되어 참된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한다.

하나님에 의해 배움을 입으면(내면의 교사가 되면) 내적 삶에서 나오는 권위(authority)가 부여된다. 이 권위는 저자를 뜻하는 ‘author’와 관계가 있다. 권위는 자신의 말, 행동, 삶이 일치되는 진정성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권위는 참된 가슴과 진정성이 없이 주어진 역할만 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 권위는 자신의 진정성과 소명의식에서 나오며,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온전성을 필요로 한다.(파커 파머, 『가르칠 수 있는 용기』, 59~64) 기독교교육의 진정한 진흥은 교사로서 자신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서 교사가 될 때, 곧 진정한 가르침과 배움의 권위가 살아날 때 가능할 것이다.

기독교교육진흥 주일을 맞이하면서 영적 지도자로서 교사들이 내면의 교사로서 진정한 권위를 바라볼 수 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하려고 한다. 이것을 통해 조금이나마 가정, 교회, 일터에서 내면의 교사로서 섬기고 또 섬기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 동역자들에게 정체성과 온전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참된 권위가 회복되어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됨(remembrance)을 경험하는 기독교공동체가 곳곳에 세워지길 기대해 본다.

“영적 지도자로서 나를 발견한 순간 돌아보기”

• **목적** : 영적 지도자로서 진정한 권위를 느꼈던 감사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야기 나눔으로써, 교사 공동체가 영적 지도자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격려한다. 또한 서로의 마음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 **준비** : ① 공간은 조용하면서도 아늑한 곳이 좋다.
② 조용한 찬양의 배경음악을 틀어 놓는다.

- ③ 진행 형태는 원형으로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한다.
- ④ 테이블 위에 다양한 빵과 접시를 인원수에 맞게 준비한다.
- ⑤ 테이블 중앙에는 여러 개의 초와 십자가를 이용하여 장식한다.
- ⑥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적혀 있는 종이를 준비한다.
- ⑦ 반별 아이들의 이름과 사진이 있는 종이를 준비한다.

시 간	내 용	담당자	내 용
모임 열기 (3분)	환영의 말	담당 교역자 혹은 부장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영의 인사말을 한다.
주제 소개 (3분)	영적 지도자 로서 경험한 감사 떠올리기	말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리 이야기를 읽어주거나 들려 줄 담당자를 정해 놓는다. - 2차 세계 대전의 폭격이 이루어지도 있는 동안 수천 명의 어린이들은 고아가 되거나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이 좋아 살아남은 아이들은 수용소 캠프에 보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간 아이들은 음식과 돌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시 노숙자 신세가 되거나 먹을 음식이 없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아이들을 안심시킬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이들에게 잠자리에서 빵을 주어서 가지고 있도록 했습니다. 밤새도록 아이들은 "오늘 나는 빵을 먹었고 내일도 빵을 먹을 수 있어." 하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Linn, Dennis, Linn, Sheila Fabricant, Linn, Matthew, Sleeping with Bread: Holding What Gives You Life, p. 1)

시 간	내 용	담당자	내 용
주제 경험 하기 (35분)	감사 나누기	다같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교사로서의 경험들을 떠올려 보게 한다. “내가 교사로서 가르칠 때 가장 감사했던 일,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순간)은 () 이다.”를 나누기 • () 안에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서 단어를 넣어보게 한다. 감사의 단어 목록 중에서 혹은 자신만의 단어를 적는다. • 인도자는 모든 교사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분위기를 살피어 인도한다. 억지로 발표하거나, 지나치게 독점적으로 나누지 않도록 발표 약속을 먼저 상기시켜준다. • 한 명씩 자유롭게 교사들의 크고 작은 경험을 나눈다. • 이야기를 마치고 나면 참석한 모든 교사들이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
	감사를 주님께 드리기	다같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인도자는 한 사람씩 자신의 감사의 단어를 적은 종이와 함께 빵을 접시에 담아서 중앙의 초 주위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놓도록 한다. • 진행되는 동안 찬양 연주곡을 틀어 주어 차분하게 진행되도록 돕는다. • 한 명씩 감사의 빵을 놓고 돌아온 교사들은 자신의 아이들의 사진과 이름이 적힌 종이를 보면서 기도를 한다. • 모든 교사가 감사드리기를 하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마친 후엔 감사 찬양을 드린다.
모임 닫기 (5분)	기 도	다같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한 교사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 문장기도를 드린 후 주님의 기도 혹은 주기도문 찬양으로 마친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아가기 전에 자신이 드렸던 감사의 빵을 집으로 가지고 돌아가도록 선물로 준다. • 먹을 때 교사로서 감사한 일과 아이들을 위해 생각할 수 있도록 당부와 축복의 인사를 나눈다. • 교회마다 환경과 시간, 진행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